

게임 종사자 '크런치 모드' 경험 ↓ 주 최대 56시간, 평균 44시간 노동

콘진원, 국내 1510명 대상 조사
종사자 희망노동시간 평균 40시간
주 52시간제 유연근무 59% '긍정'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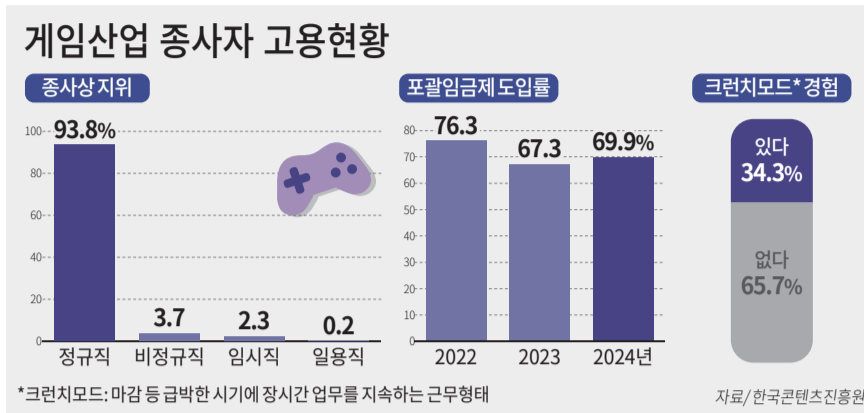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2종은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글로벌 게임산업의 정책·법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게임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및 보상 체계 개선 필요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을 앞두고 급박한 시기에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3.9%p 감소한 34.3%로 나타났다.

특히 크런치 시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6.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으며, 전체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종사자



들이 희망하는 40.3시간과 차이를 보였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5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행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69.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이용자 보호 강화 추세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싱가포르·대만·브라질·호주·인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표준약관 ▲등급분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등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주의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정보통신미디어 개발청(IMDA), 연방정부 문화부 등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 규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과 호주, 인도는 게임산업 전담 기관 없이 소비자 분쟁, 공정거래와 같은 분야별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대만은 2023년부터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주는 올해 9월 22일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M등급(성인 권장)을 적용했다. 브라질은 판매 규제가 없지만, 2019년 확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과 2022년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코웨이,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 나서

코티티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공기청정기 미래기술 확보 등 추진

코웨이가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과 공기청정기 기술력 확보를 위해 나선다.

5일 코웨이에 따르면 KOTITI시험연구원과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웨이는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국내의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연구 현황 관련 정보의 교류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 기술 관련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 ▲공기청정기 미래 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왼쪽)과 최인두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기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 문을 연 N32 매장.

비건 매트리스 'N32' 롯데백 본점에 오픈

N32 폼 매트리스 등 전라인업 준비

아이슬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 'N32'가 롯데백화점 본점에 매장을 열었다.

5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 문을 연 N32의 매장은 팝업 형식으로, 내부는 기존 침대 매장에서 탈피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푸르른 자연을 형상화한 각종 조형물과 카펫, 오브제 등으로 친 환경 연출을 강화했다.

N32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N32 폼 매트리스 ▲N32 스프링 매트리스 ▲N32 레귤러 토퍼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II 등 N32 전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N32 폼 매트리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폼 매트리스들의 고질적인 단점인 열감과 쉰림 현상을 개선했다. 액티브 리프레시 폼(AR폼)으로 통기성을 강화했고 매트리스 최상단에 천연 소재의 식물성 린넨 자가드 원단을 더함으로써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N32는 전 제품의 원단과 패딩에 '아이슬란드 씨셀'을 사용한다. 아이슬란드 청정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이 섬유인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이 소재는 생분해가 가능해 자연으로 환원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N32는 롯데백화점 본점 오픈을 기념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풍성한 사은품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신임회장 취임

라인업 확대 등 4대 경영비전 제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 목표"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부회장이 신임 회장(사진)으로 취임했다.

조용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강화를 통한 토털헬스케어 선도기업 도약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R&D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투자 확대 ▲소통과 혁신 중심의 기업문화 계승 등 '4대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5일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용준 회장



은 1991년 입사해 200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

이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취임 당시 300억원대였던 매출(별도 기준)이 지난 2023년에 2149억원으로 늘며 7배 이상 성장하도록 주도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피부과 처방 1위를 달성하며 업계 선도해왔다. 2014년에는 회사명을 동구바이오제약으로 바꿔 바이오 분야 도전도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창업주이자 선대 회장인 고 조동섭 회장의 '그러나 된다'는 경영철학을 계승함과 동시에 모친인 이

경옥 전 회장의 소통 중심 경영을 통해 회사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다.

조용준 회장은 "55년 역사의 도전과 혁신을 이어받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과 메디컬푸드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예방에서 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털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매출 확대 기여

소진공, 2023 점포경영 실태조사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실제로 전통시장·상점가의 고객 수를 늘리고 매출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발간한 '2023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유통

균 사용 고객 수는 25.1명으로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에서는 13.1명, 상점가에서는 14.9명으로 전통시장의 유통 평균 이용 고객 수가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모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구매한 평균 객단가는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평균 객단가는 2022년 3만4080원

에서 2023년 3만6240원으로 216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점가 내 점포에서는 평균 객단가가 300원 증가한 3만 5310을 기록했다.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9408원 증가한 9만4430원의 객단가를 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온누리상품권이 매출 증가와 고객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시장 전체 매출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2%로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중소상품·농축산물 구매시 적립금 지급

공영홈쇼핑 '새해 적립이오' 이벤트

공영홈쇼핑이 새해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2회 이상 구매 시 적립금을 증정하는 '2025 새해 적립이오' 이벤트를 펼친다. 행사 기간 방송 상품을 두 번 이상 구매한 고객 중 결제액별로 차등 적립금이 지급된다. 적립금은 내달 19일 일괄 지급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60일이다.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앱에서는

'2025 새해 고민을 말해봐' 이벤트가 펼쳐진다. 오는 12월까지 신년 고민 해답을 확인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아이디(ID)당 1회만 발급한다.

해당 이벤트에 하루 한 번씩 참여해 총 7회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 새로 가입했거나 최근 3개월간 구매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